

<p>민 지 실</p> <p>음 혜 천</p>	<h1>BUDDHANARA</h1>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셋째주 일요일 11 시 : 7 일 부처님 오신 날 기도 입재 및 애기 연등 만들기

넷째주 일요일 10 시 30 분: 7 일 부처님 오신 날 기도 회향 및 봉축 법요식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봉축 법회)

둘째주 일요일: 봉축법회 및 가족 운동회 오전 11 시 - 오후 3 시

Pavilion #1, George Pierce Park

새벽기도: 아침 6 시 30 분 - 7 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g 9am. (매주 토요일 9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진실한 통찰력 가진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아무 곳에나 탄생하는 것 아니네.
부처님 나신 곳에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A man of the true vision is not easy to find, a
Buddha who is awake is not born
everywhere. Happy are the people where
such a man is born.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0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법전 중정예하의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어 전문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납시다

오늘은 부처님이 미완未完의 여래如來로 태어나서
해탈解脫의 길을 열고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무생無生한 삶은 자재自在하여 오고 감이 없으나
법신法身은 불멸不滅하여 온 누리에 그 모습을 나눕니다.

찾으면 은현자재隱現自在하여 엿볼 수가 없고
모든 곳에 응하나 텅 비어 공적空寂합니다.
미오迷悟의 근기에 따라 차별差別을 일으키지만
여러분 앞에 본체本體의 기용機用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무명無明 속에 부처를 빚어내는 밝은 길이 있고
번뇌煩惱 가운데 엽매임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 있으니
눈앞에 있는 모든 생명이 법신法身の 구현체요.
여러분이 불조대기佛祖大機를 구족한 미륵彌勒의 현신입니다.

본래는 범부凡夫도 성인聖人도 아니고 이름도 없었으나
어둠에 미혹하여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었으니
오늘은 엽매임에서 벗어나 무위진인無位眞人을 이룩하여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납시다.

佛紀 2554 년 사월 초파일에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道林 法傳

불기 2554 년 부처님오신날 총무원장 자승스님 봉축사 전문

꽃은 잎이 되고 그 잎은 다시 꽃이 되는 5 월입니다.
낮에는 신록이 산하(山河)를 장엄(莊嚴)하고, 밤에는 연등이 천지를 밝히니 천등만화(千燈萬花)가 부처님오신날을
환희로움으로 경하(慶賀)합니다.
구름이 겹으로 가려도 태양은 반드시 출현하듯이 어둠 속에서도 지혜구슬은 빛나기 마련입니다.
흙탕물의 진흙 속에서 부용(芙蓉)이 피어나듯 심전(心田)의 메마름 속에서도 자비의 감로(甘露)는 세상의 논밭까지
적셔줍니다.
다름의 천태만상 속에서 같음의 공유면을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하고 백가쟁명 속에서도 원용화쟁의 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의 불길 속에서도 연꽃씨앗은 발아할 인연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은
공생(共生)을 위한 또 다른 지혜입니다. 사통팔달 소통으로 막힌 곳이 없으니 남녀노소와 내외좌우(內外左右)가
언제나 화합의 광장에서 춤을 춥니다.
나눔의 강물이 사해(四海)로 흐르고 흘러 소외된 이웃이 없으니 동포와 다문화 가정이 모두 일가(一家)를 이룹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공주(共住)를 위하여 등불을 대강(大江)에 걸고 국민을 받들 줄 아는 공복(公僕)을 향한
등불을 밝히며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하여 삼소(三笑)등불의 심지를 돋우어 재삼 점등합니다.
천안함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의 청안을 기원드리며 더불어 걱정해 주시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 주신 모든
국민들은 이 공덕으로 원하는 바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길 지심축원드립니다.
사부대중은 스스로를 등불삼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삼아 여일(如一)한 정진과 자비로운 보살행을 통하여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날입니다.

2554 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마음의 등 밝혀 세상을 밝게”: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본격 시작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불기 2554년(2010)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봉축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봉축행사가 전국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4월 20일부터...이웃과 함께하는 ‘축제’

봉축위원회가 밝힌 올해 봉축행사의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자비나눔으로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젊은층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시켜가는 부처님오신날 △세계인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고 나누려는 노력을 기울여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다양한 자비나눔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등과 관불 등 전통적인 풍습과 의식을 지켜 내려오는 사월초파일은 전통문화로 잘 가꾸고 지키며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외국인의 동참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봉축위원회는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과 지방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점등식을 개최한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어울림마당(5월 9일), 전통등전시회(5월 14일~23일), 연등놀이(5월 15일), 화합한마당, 연등행렬, 회향한마당(이상 5월 16일)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부처님오신날 당일에는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한다. 서울에서 열리는 부대행사는 종각·광화문 연등전시(5월 17일~23일), 청계천 등전시(5월), 연등회 장엄전(5월초)이 있다.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순국 장병들을 추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사부대중과 함께 숙연한 분위기에서 봉축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비나눔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27개의 자비나눔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봉축위원회는 지난 20일까지 64개 지역의 ‘지방 봉축행사’를 집계했다. 이 또한 부처님오신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지나친 이기심과 경쟁으로 갈등과 빈부격차, 생명경시 등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마음의 등을 밝혀 세상을 비추고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했던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부처님오신날 표어로 선정한 봉축위원회는 “모두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다른 이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노력으로 따뜻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부처님 오신 뜻 되새기는 5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의 대표적인 행사인 서울시청 앞 광장 봉축탑 점등식이 연기됐다. 지난 4월 2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일주일 뒤인 오는 3일에 열리게 됐다. 천안함 침몰 사고에 따른 국민추모기간이 지난 4월 29일까지로 정해지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추모 분위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배려로 해석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얼마 전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봉축행사가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기조로 이번 봉축행사는 자비나눔 프로그램이 강화됐다.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되새기자는 선언인 셈이다.

연등축제는 이제 불자나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세계적인 행사는 단순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축제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하다고 해도 그 내면에 숨겨진 정신과 사상까지도 아름다워야, 세계인들의 호응을 얻어야 진정한 세계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천안함 사태를 맞고, 전지구적으로 지진과 태풍, 분쟁으로 인한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요즘, 부처님오신날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감싸 안고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기원의 장이 돼야 한다. 부처님이 전도선언에 밝혔듯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는 불자가 돼야 하겠다. 항간에는 국내외적 사정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이럴 때 일수록 내 주변의 소외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과 함께 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일 것이다.

美 부다나라, 18 일 정기특별법회 봉행 : 주지 선각스님, ‘실천의 중요성’ 강조



오늘(4 월 18 일) 열린 미국 부다나라(불국사) 정기특별법회에서 ‘깨달음을 향한 실천과 전법의 공덕’을 주제로 법문하고 있는 선각스님의 모습.



해외포교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미국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불국사) 주지 선각스님 초청 정기특별법회가 오늘(4 월 18 일) 오후 2 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봉행됐다.

국내 불자들에게 해외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정기법회에는 조계종 균중특별교구장 자광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을 비롯해 부다나라 후원회원 등 사부대중 100 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깨달음을 향한 실천과 전법의 공덕’을 주제로 법문한 선각스님<사진>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각스님은 “훌륭한 지혜도 실천에 의해 비로소 그 빛을 바랄 수 있다”면서 “불자들이 부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을 내 안에만 묻어두지 않고 세상을 향한 실천 속에서 깨달음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각스님은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해답이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갖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해외포교 역시 어렵다고 하지만 그만큼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포교원장 혜충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융광로처럼 섞여있는 미국에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정신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신도 네트워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균중특별교구장 자광스님도 “포교는 가장 좋은 수행이자 공덕을 쌓는 일이며 종단을 빛내는 방법”이라며 “미국 중부지역에서 한국불교가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선각스님과 불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회에 이어 손정아 재미민족예술가무단장의 찬불가 창작무용, 개운사 가람 합창단, 부다나라 중창단 등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조계종 사회부 국제포교 프로그램 공모결과 발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부에서는 지난 1 월 27 일에 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1432 호를 통해 공고한 국제포교 프로그램 공모와 관련하여 4 월 15 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9 개 사업 중 아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이를 발표하오니 선정된 사찰과 단체는 송금 계좌번호를 국제팀에 통보하여 주시고 사업을 원만 성료후 별첨 결과보고서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011-1823, 이메일 hong@buddhism.or.kr)

아 래

신청 단체	사업내용	지원액	비고
미국 조지아 불국사(부다나라)	- 한인지역 커뮤니티센터 정기법회 및 포교 - 조지아공대 불교학생회 창립 지원	250 만원	현실성 있고 실속있는 예산안
미국 미네소타 삼불사	- 현지인 대상 참선 프로그램 - 여름캠프 및 한글학교	200 만원	현지인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강화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	- 봉축행사 진행 (법사초청, 다양한 문화행사 진행)	300 만원	밀집지역 연합행사 감안
호주 정법사	- 시드니 연합 불교인의 밤 - 한국 전통문화 소개 프로그램	300 만원	밀집지역 연합행사 감안
호주 금강사	- 어린이 교실 공간 확보 - 이민 2,3 세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 연등 페스티벌 개최	300 만원	어린이 대상 실속있는 사업계획
우즈벡 자은사	- 8.15 기념 고려인 천도재 개최 - 각종 전통문화공연 진행	500 만원	20 만 고려인 대상임을 감안

* 심사위원회(사회부장 혜경스님, 국제교류위 진월스님, 종회의원 정범스님, 사회국장 묘장스님, 국제팀장 홍민석, 사찰교무팀장 박종학, 이상 6 명)

선지식은 인생길의 큰 등불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나침반이 필수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거나 사막을 건너야 할 때는 물론이요, 바다를 향해하거나 하늘을 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려는 곳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지 않고도 무사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려면 이정표 확인은 필수입니다. 나침반과 이정표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다녀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그 뒤를 따라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선지식은 이처럼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먼저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해도 선지식이 목적지인 것은 아니요 길의 이름도 아닙니다. 나는 선지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선지식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도시까지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도시로 가려는 어떤 초행자가 그 사람에게서 길을 물을 때 그는 이 자리에서 출발하여 어느 곳으로 길을 잡아야하고, 그러면 어떤 마을에 이를 것이고, 그 마을에서 다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사히 그 도시에 도착한 뒤에는 그 도시 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과 숲의 위치까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일러준 대로 길을 잡는다면 누구라도 왕이 사는 도시에 도착할 것이요, 묻기는 하였으되 그가 가르쳐준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이런 자는 왕이 사는 도시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아함경>에 들어 있는 <산수목건련경(算數目連經)>의 내용입니다. 이 경에 의하면, 선지식은 목적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길을 떠날 사람에게 이런 선지식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혹시 그 길이 단순한 여행자의 길이 아니라 진리를 탐색하는 수행의 길이거나 지식의 비밀창고를 탐색하는 학문의 길이라면 선지식의 의미와 역할을 더욱 더 소중해집니다. 황망한 인생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에게도 선지식은 크나큰 등불이 됩니다. 그런데 수행의 길, 학문의 길, 신앙의 길에서 선지식이 길을 함께 떠나자고 까지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행운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따금 이런 나침반이나 이정표보다 더 소중한 선지식을 무시하고 무작정 길을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성격과 취향대로 사는 것이니 흠잡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등벌거숭이 마냥 의지가 하나 없이 사방을 들쭉시고 다니는 사람만큼 황량하고 피폐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길을 가리켜주는 이를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보거나 반쯤 믿는 이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러주는 대로 길을 끝까지 가보기도 전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달을 봐야지 언제까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겠느냐?’라면서 길을 가리켜주는 이를 손가락에 비유하는 경우도 종종 만납니다. 이것 참 난처합니다. 내 자신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겠다는 생각만 확고하다면 나의 시선은 전적으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손가락을 언젠가는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대로 따라갈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출발한 아들-그는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배우지 않아 애초 여행의 목적은 물론이요, 여정의 즐거움까지도 얻지 못한 딱하기 이를 데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가봤자 별 거 없다”는 말일 밖예요.

이미령 /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美 공군사관학교에 군법당 생겨:콜로라도주 공군사관학교서 종교편향잠재우기 위해 설립

미국 콜로라도주(州)에 위치한 美 공군사관학교가 학교 내 종교시설로 군법당을 짓고 법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로써 미 공군사관학교는 미국 내 사관학교 중 유일하게 불교법당을 갖추게 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군법당은 사관학교 내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종교편향을 잠재우기 위해 세워졌다. 2005년 보수주의 개신교인들의 적극적인 교내 선교활동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학교가 전통양식을 갖춘 군법당을 세운 것. 프레데릭 렌츠(Frederick P. Lenz) 재단은 미국 불교 증흥을 위해 300 피트 공간에 해당하는 건축비용을 지원했다. 법당의 바닥은 대나무, 벽은 삼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빗나무로 조성된 미얀마 형식의 불상을 봉안했다. 군법당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법회를 열고 수행시간을 갖는다. 매 법회에는 20여 사관생도가 참석한다. 사관생도 테너 포크너(Tanner Faulkner · 18)는 “군법당이 들어선 후 종교편향의 풍토는 많이 나아졌다”며 “불교 수행활동은 종교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욱 수행에 집중하게 한다. 법당에 유대인, 가톨릭, 개신교인 구분 없이 법회 참여를 가능하게 해 불교는 열린 종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이 종교활동을 하지만 군인인 만큼 항상 드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바로 ‘가장 평화적인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가 과연 군대와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 사관학교 불교프로그램 팀장인 사라 벤티(Sarah Bender)는 “항상 아군을 지키기 위해 적군을 죽인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매주 수요일 군법당에 가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라고 말했다. 벤티는 “왜냐하면 불교는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 탐구하는 종교다.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바로 지금 화두를 삼고 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불교수행이기 때문”이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 현재 140만 명의 미군 중 5287명이 스스로 불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타뉴스에서 발췌-

세계 최대 종교는 불교 15억:가톨릭13억,개신교7억,이슬람12억... 지금까지 집계에서 중국불자수 제외

전 세계 66억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믿고 있는 종교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불자수는 3억 6000만 명으로 20억 인구가 믿는 기독교보다 턱없이 적은 숫자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세계 불자수가 15억에 이른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진흙속의연꽃’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블로거는 “세계종교인구”라는 ‘한글’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불교가 3억 6000만, 가톨릭 13억, 개신교 7억, 이슬람이 12억으로 나온다. 이런 수치는 우리나라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거의 동일하다. 정말 불교 인구가 이것 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위키피디아와 ‘릴리저스톨러런스’에서 세계 종교 분포도를 검색한 결과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인구통계 자료의 편차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불교는 3억 5000만~16억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며 “중국 불자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불자수가 15억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구글(Google)로 세계종교인구(world religion population)를 검색해본 결과, 종교인구 분포도에 불교는

2억 5000만~5억으로 표시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숫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도표 밑에는 각 지역별 종교에 대한 해설과 함께 중국의 종교(Religion in China)편이 있다. 이 가운데 불교 편에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열거돼 있다.

위키피디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불교는 억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야 다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신도를 갖는 체계화된 종교로 회복할 수 있었다”며 “중국정부는 10억의 인구가 불교를 믿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키피디아는 “오늘날 중국과 대만에서 정토종과 선종의 혼합된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도시의 성공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불자수는 6억 6000만(중국 전체인구 중 50%)에서 10억(80%)으로 예측됐고, 이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하지만 정확한 불자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집하는 모임도 없고 공식적인 종교의식이나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대승불교를 믿는 중국인들 스스로 도교와 불교를 동시에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각국의 종교를 아우르는 포털사이트 릴리저스 톨러런스(religioustolerance.org)는 세계 종교 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게재했다. 종교 인구분포에서는 타종교는 편차가 없었지만 불교는 3억 5000만에서 16억으로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이 사이트는 불자인구의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1995년 중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단 5%만이 불자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키피디아는 국가별 불교현황(Buddhism by country)에서 각 나라별 불교인구 현황을 조사해 도표로 나타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는 편차가 없었던 반면 중국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탓에 최소 8%에서 최대 80%로 집계됐다.

중국의 불자 비율을 인구수로 환산하면 1억 5000만~10억 5000만 명이고, 전 세계 분포된 불자 비율을 합산한 결과 66억의 인구 중 7.3~22.6%가 즉, 4억 8000만~15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 불자수에서 중국 불자를 뺀 값을 보면 3억 3000만~4억 5000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 불교인구 3억 6000만과 근접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불자를 뺀 정보가 신뢰도 있는 정보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키피디아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엄밀히 분석하는 일이 남았지만, 세계 불자수를 최대 15억으로 집계한 것은 주목된다. 세계 종교 인구 통계는 다시 쓰여져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불교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지닌 옛 통계였다면 더욱 그렇다.

-붓다뉴스에서 발췌-

봉 축 기 도

온 누리에 가득하신 광명의 부처님,
정갈한 마음으로 향 사르며 공양하오니
한 줄기 향연이 법계에 가득하여
부처님 회상 상서롭게 장엄하여지이다.

저희가 무량한 세월 착한 인연 뿌리내려
금생에 ‘부처님 만남’의 꽃 피웠습니다.
이제 가냘픈 신심이나마 여린 가슴에
초발심의 촛불되어 타오르고 있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직 한 가지 중생을 청정케 하시고
큰 깨달음의 길 열어 보여 주시려는 원력으로
사바에 나투신 그 ‘오심’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찬란한 오월 떨리는 감격으로 님을 맞사옵니다.
크나큰 가피와 은혜 그 빛나는 만남 위해 기도하옵니다.
언제나 ‘부처님 오심’ 그 기쁨으로 가득하여
오택의 삶 속에 한 송이 하얀 연꽃
피워내기 발원하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불기 2554년 (2010년) 5월 16일 (양력)에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를 입재 및 연등을 만들기가 있었고, 5월 23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 회향 및 법요식을 가집니다. 또한 2554 번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국사에서는 일년 연등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일년 연등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나 한국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일년 연등 동참은 5월까지 접수 받습니다. 가족등 및 일인 일등 모두 접수 받습니다. 기도 동참금은 \$100.00 (한국은 십만원) 입니다.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 안내: 오는 불기 2554년 5월 9일에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봉축하는 야외법회가 눈부신 봄날 George Pierce Park 에서 열립니다. 작년보다 더 다채로운 행사와 많은 기념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많은 법우님들이 참석하시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뜻있는 시간 다함께 나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장소 : Pavilion #1, George Pierce Park , 55 Highway 23 NE Suwanee, GA 30024
 (공원으로 들어오셔서 50 미터 정도 내려오시면 오른쪽에 조그만한 parking lot 이 보입니다. 거기서 걸어서 다리를 건너 숲속으로 들어오시면 Pavillion #1 이 보입니다.)
 시간 및 행사: 오전 11 시 ~ 오전 12 시 : 야외법회
 오전 12 시 ~ 오후 1 시 : 점심공양
 오후 1 시 ~ 오후 3 시 : 단주 만들기, 아기 연등 만들기, 각종 퀴즈 및 게임, 어린이 운동회
- 부다나라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이 불국회 연례 정기 법회에 참석차 약 3주간 한국을 방문한 기간동안 토요일 법회와 일요일 법회를 예정대로 열고 법회 진행을 해 주시고 법회 참석들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주중에도 사찰을 관리 해주신 여래성 김선영 불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서 “해외사찰 포교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부다나라가 “애틀랜타 부다나라 사찰 창건 환경만들기 및 포교 와 조지아공대 불교학생회 창립 프로그램” 사업 부분이 선정되어서 250 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4 월 18 일에 “2010 부다나라 후원회 정기 특별 법회”가 선각 스님을 모시고 ‘깨달음을 향한 실천과 전법의 공덕’이라는 주제로 “역사 문화 기념관 공연장”에서 가졌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총근스님의 축사와 군종특별교구장 자광근스님의 격려사와, 축하무대 공연으로는 재미민족예술가무단 단장 손정아, 머루와 다래, 가수 일광 박정식, 퓨전국악가수 신이나, 조유리, 개운사 가람 합창단, 이번에 창립된 부다나라 중창단으로 이루어진 다채로운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불국사 (부다나라) 후원회원 약 150 여명이 모인 가운데 법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혜총근스님은 애틀랜타 불사 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500 만원을 시주해 주셨습니다.
- 2010년 4월 29일 선각 스님은 전법회관에서 2시간에 걸쳐 국제포교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날 강의를 듣기 위해 참석한 학생들은 약 2년간의 전문교육을 거쳐 미래에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2010년 3월, 4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312 번 임인생 김형민, 446 번 무인생 법화행 신경숙, 447 번 무인생 원정형 원상희, 448 번 을유생 법성월 신동희, 449 번 임진생 법성화 신동립, 505 번 을유생 이창욱, 506 번 무자생 허화미, 511 번 계묘생 김용규, 512 번 정미생 김영숙, 513 번 을해생 김연희, 514 번 정축생 김민정, 병진생 박지훈, 516 번 경신생 김우진, 517 번 신유생 박성원, 518 번 을축생 James Gust.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한 평불사: 경오생 강정철, 무진생 심상완
 법정스님 무소유 30 권 법보시: 김일태 교수님 (세인트루이스는 5월 첫째주 법회때, 애틀랜타는 둘째주 법회때 나눠드립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